Vol.17 | April 2024

Samil PwC ESG Newsletter

탄소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도 기회 주는 '전환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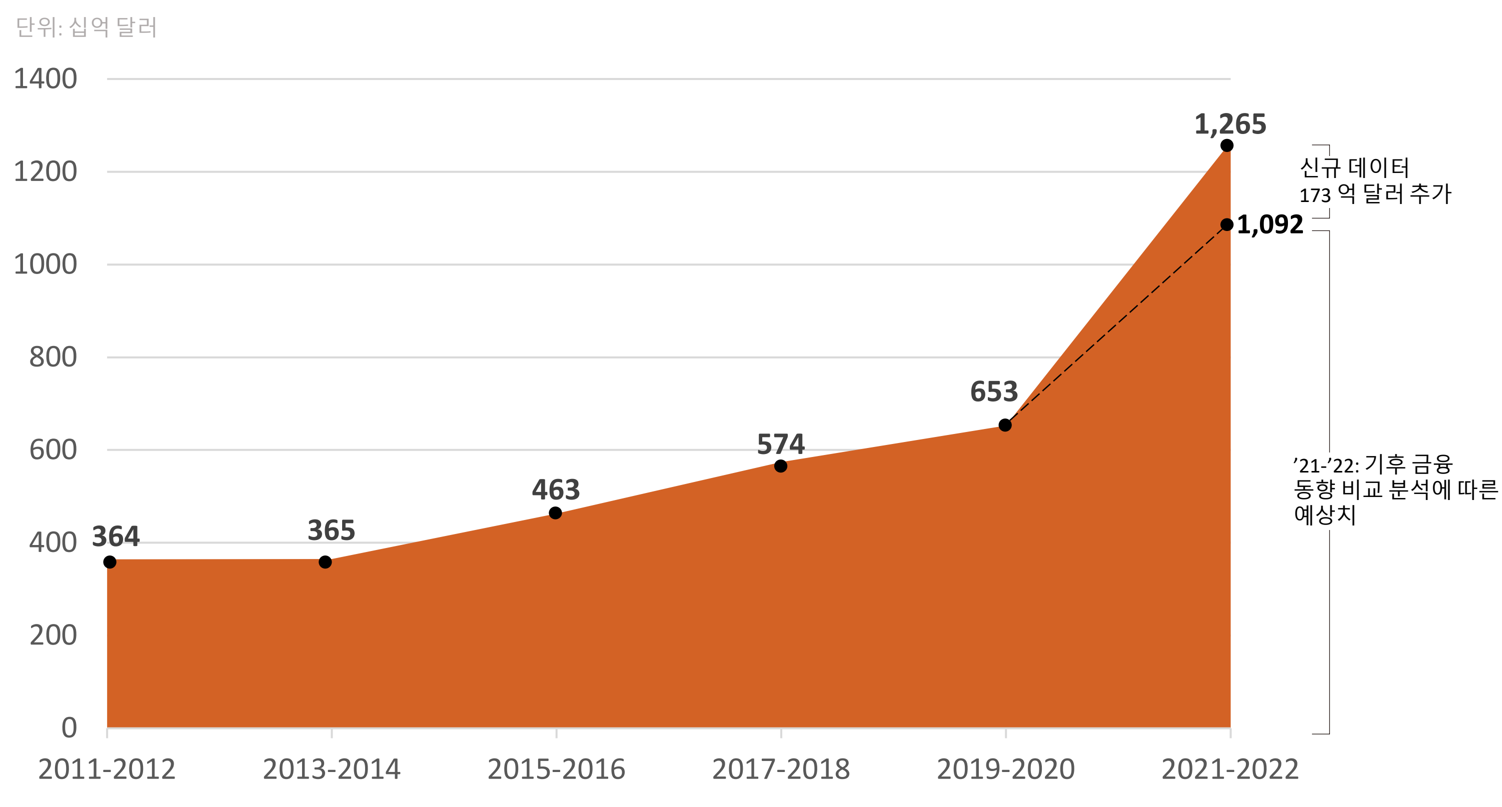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장 자금이 친환경 기술 개발이나 저탄소 전환 분야로 적절히 배분될 수 있게 돕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글로벌에서 주목 받고 있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SG Platform
김도연 파트너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이니셔티브인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본의 흐름이 저탄소 분야로 흘러가도록 하는 '기후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후금융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간 기후금융 규모는 약 1조 3천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9년~2020년(6,530억 달러)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직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기후금융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2022년 글로벌 기후금융 규모(2년 평균)



@출처: Climate Policy Institut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23, 삼일PwC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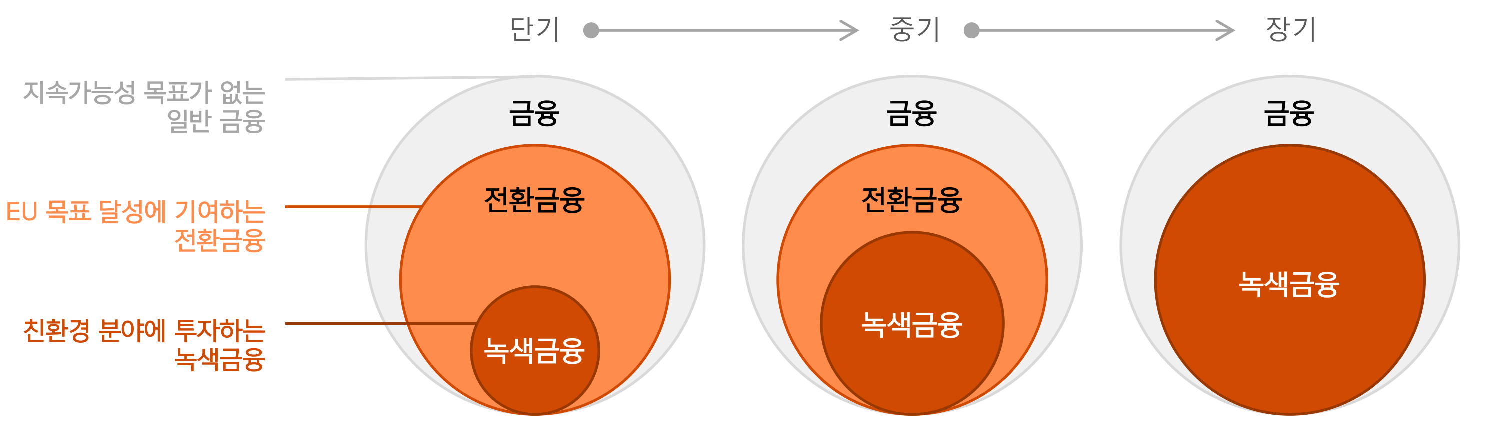
글로벌은 '전환금융' 투자에 주목

전 세계적으로 기후금융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기후금융 기법이자 탄소중립 자금 조달 수단인 '전환금융'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녹색금융이 자금 조달 및 금융 투자시 친환경 요소에 집중한다면, 전환금융은 고탄소배출 업종의 기업까지 투자 대상으로 보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전환 전략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기존의 녹색금융은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에 부합하는 분야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높고 친환경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은 자금조달 시장에서 소외됐습니다. 녹색금융이 경제 전반의 탄소중립을 위해 제한적이라는 국제사회(G20, 세계경제포럼 등)의 지적에 따라 전환금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블랙록, 바클레이스 등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이 전환금융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전환금융팀을 신설하거나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금융 vs. 녹색금융 vs. 전환금융의 관계는?

지속가능금융의 개념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유럽연합(EU)은 EU집행위원회의 전환금융 권고안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을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명시했습니다. EU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환금융 활동이 녹색금융 활동에 포함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환금융이 고탄소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환금융은 녹색금융과 같이 EU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Green Finance)과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출처: EU 집행위, COMMISSION RECOMMENDATION (EU) 2023/1425 of 27 June 2023 on facilitating finance for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y, 삼일PwC 재구성

제도적 기반 마련한 EU·일본·아세안…한국은?

새로운 개념인 전환금융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EU, 일본, 아세안*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탄소 산업 비중이 높은 일본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금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1년부터 관련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고도화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3대 금융그룹이 전환금융을 도입하며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전환금융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환경부가 고탄소 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을 운영 중이고,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 원 가량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민간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미뤄 봤을 때 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전환금융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SEAN Taxonomy(아세안택소노미): 친환경 경제 활동과 탄소중립에 필요한 과도기적 전환활동을 모두 포함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중요해 질 것

기업은 전환금융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 기후금융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금융제도와 상품을 레버리지 삼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 목적에 알맞은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의 전환 전략을 평가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은행 및 투자기관은 전환 전략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달성 현황, 기업의 전환 목표에 따른 실제 투자 현황 등 자체 검증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평가 및 심사를 수행합니다. 결국 기업이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투명한 '정보 공시'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제 ESG 공시는 규제 대응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투자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SG 주요 기사

ESG

- 'XBRL' 공시 분류법, ESG 산업 재편한다, 한경ESG, 2024.4.15
-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 한국회계기준원, 2024.4.12

ENVIRONMENT

- 글로벌 상장기업 60%가 기후 공시한다… 미국 기업은 45%에 그쳐, 임팩트온, 2024.4.16
- 자연자본 손실 기업 재무적 위험 요인....KRX 상장사 자연자본 재무적 위험 노출 세계 9위, ESG경제, 2024.4.12

SOCIAL

- 유럽 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응 못하면 인권 침해"… 정부가 전적으로 배상해야, 뉴스퀘스트, 2024.4.11

GOVERNANCE

- 삼일PwC "기업 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2024.4.15

ESG 통합정보플랫폼 'SamilESG.com'

SamilESG 회원가입

Samil ESG 사이트 바로가기 →

PC접속

CONTACTS

ESG Platform Assurance Partner
권미엽
miyop.kwon@pwc.com
+82-2-709-7938

ESG Platform Tax Partner
이혜민
hye-min.lee@pwc.com
+82-2-3781-1732

ESG Platform Deal Partner
곽윤구
yun-goo.kwak@pwc.com
+82-2-3781-2501

거버넌스센터 Managing Director
하미혜
mihye.ha@pwc.com
+82-2-709-8599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ption.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wc 삼일회계법인